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

Comparison of 29 Diagrams of Liver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明堂臟腑圖)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research what affected diagrams of liver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while they were changed.

Methods : Diagrams of liver in Traditional Chinese and Japanese medical books had been gathered as many as possible. After they were divided into ones which were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and the others, diagrams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were again classified into 4 filiations according to Huang Longxiang(黃龍祥)'s standard. Apart from his classification, they were analysed by 4 form factors, e.g. shape, number, veins and petiole of leaf.

Results : Reliability of this methods had been confirmed by the correspondence with Huang's 14 standard books, before 29 diagrams of liver were derived from 33 books including 13 books that Huang had already suggested. The lobes of liver in most of diagrams resembled 7 lanceolate or long oval leafs, or a maple leaf with 6 indentations, 4 left lobes and right 3 ones. In most of diagrams, veins of leafs were described variously, and petioles of leafs were drawn more shortly or longer. Analysing 29 diagrams by 4 form factors proved that Huang's classification had crossing features among 4 filiations. This phenomenon implied the painters or doctors drawing diagrams might not convince if the shape of liver was correct or not. Although veins and petiole of leafs in diagrams of liver could be compared with tissues in liver in modern human anatomy, diagrams were not been affected by dissection from Yuan(元) to middle Qing(清) dynasty.

Conclusions : *Lingshu*(靈樞), *Nanjing*(難經) and Wang Bing(王冰) would had constantly acted on 29 diagrams of liver, since diagram of liver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appeared first in *Zhenjiujuying*(鍼灸聚英). But they did not come from dissection during same periods.

Key Words : diagram of liver, *Mingtangzangfutu*(明堂臟腑圖), *Lingshu*(靈樞), *Nanjing*(難經), Wang Bing(王冰)

I. 서론

臟腑圖는 臟腑總圖와 臟腑分圖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¹⁾, 臟腑總圖는 五臟六腑를 포함하여 전신을 한 폭에 나타낸 그림이며, 臟腑分圖는 개별 臟腑를 한 폭에 나타낸 그림이다.

元代 忽泰가 지은 『金蘭循經』(1303)에 明堂臟腑圖가 실려 있는데 현재 明代 『鍼灸聚英』을 통해 그 臟腑分圖만 전해져서 최초의 臟腑分圖가 그제야 등장하며²⁾, 이 臟腑分圖를 다른 서적에서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함으로써 여러 개의 臟腑分圖가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鍼灸聚英』으로부터 기인한 臟腑分圖를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分圖’라고 부르며, 그 중 肝臟圖를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라고 부를 수 있다.

『鍼灸聚英』 肝臟圖를 인용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형태(나뭇잎 모양)는 비슷하지만 미세하게 변형되었는데, 그 變異가 발생한 이유가 단순히 醫家들이 정밀하게 模寫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특히 『鍼灸聚英』 臟腑分圖의 附記에서 『難經』을 주로 인용³⁾하였기에 그 관련성을 추측하게 한다.

肝臟圖가 33종으로 變異되는 과정에서 실제 해부 지식의 반영되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대 해부학과

비교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肝臟圖의 附記에 인용된 문헌 등이 肝臟圖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圖(臟腑總圖 및 臟腑分圖)를 黃龍祥은 4가지 계열로 분류하여 서적 14종을 제시하였으나⁴⁾ 단순히 인용관계를 밝혔을 뿐이고, 게다가 분류기준을 밝히지 않았기에 그가 제시하지 않은 서적을 추가로 분류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三才圖會』와 『類經圖翼』의 臟腑分圖를 이 등⁵⁾이 비교하였지만 여러 가지 肝臟圖로 變異되는 과정은 다루지 않았다.

그 외에 『醫方類聚』 五臟六腑圖의 저자를 김등⁶⁾⁷⁾이 밝히려 시도하였고, 『東醫寶鑑』의 身形藏府圖, 五臟圖, 觀察形色圖 등 모든 圖像을 한⁸⁾이 다루고, 身形藏府圖를 成⁹⁾, 成 등¹⁰⁾, 鄭 등¹¹⁾, 金¹²⁾, 鄭¹³⁾이 다루었다. 그러나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와 『東醫寶鑑』의 五臟圖가 明堂臟腑圖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중국에서는 “明堂圖”源流簡考¹⁴⁾, 五臟圖考¹⁵⁾ 등

* Corresponding Author :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 +82-43-649-1347, Fax : +82-43-649-1702

Email : palm01@hanmail.net

Received(26 April 2016), Revised(11 May 2016),

Accepted(12 May 2016).

- 1) 한봉재. 동의보감의 圖像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6.
- 2)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30. “현재 전해 오는 明堂圖 중에 최초는 元代의 正人, 伏人, 側人의 三人明堂圖이다. 그 臟腑圖는 臟腑明堂圖라고 명명하고 側人臟腑總圖에 속하는데, 北宋 楊介의 存眞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를 하나의 臟腑總圖로 합성한 것이다. 醫家들이 五臟六腑를 나누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明代 중엽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다.”
- 3) 肝臟圖에는 ‘左三葉, 右四葉’, 肺臟圖에는 ‘六葉 兩耳’, 大腸圖에는 ‘大腸上口, 小腸下口也’, 小腸圖에는 ‘小腸上口, 胃下口’ 등이 그것이다.

- 4)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30. 黃龍祥은 明堂臟腑圖源流에서 明堂臟腑圖를 계열별로 나누고 있는데 明堂臟腑圖는 臟腑總圖와 臟腑分圖로 이루어져있다.
- 5) 이명철, 박경남, 맹웅재.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 臟腑圖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7. 20(2). pp.149-168.
- 6) 김대형, 안상우.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著者と 編制에 대한 고찰. 韓國醫史學會誌. 2003. 16(1). pp.39-62.
- 7) 김대형. 『醫方類聚』에 인용된 『五臟六腑圖』의 의학적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6.
- 8) 한봉재. 동의보감의 圖像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p.6.
- 9) 성민규. 『東醫寶鑑』 身形藏府圖 研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p.55-58.
- 10) 성민규, 정창현.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에 관한 비교 연구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를 기준으로-. 대한한의학회지. 2008. 21(3). pp.165-175.
- 11) 정우열, 이진홍, 전병훈. 身形藏府圖와 許浚의 醫學思想. 동의생리병리학회지. 1996. 10(2). pp.1-11.
- 12) 김태우, 윤종화.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와 정기신(精氣神)의 관련성(關聯性)에 관(關)한 연구(研究). 大韓醫藥氣功學會誌. 2007. 10(1). pp.74-99.
- 13) 정우진. 『동의보감』 신형장부도(身形藏府圖)의 지층발굴. 汎韓哲學. 2012. 64. pp.57-84.
- 14) 潘萍, 郭义, 王东强. “明堂圖”源流簡考. 針灸臨床雜誌. 2008. 24(5). pp.1-4.

Table 1. The diagrams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明堂臟腑圖)

| | |
|-----------|--|
| 鍼灸聚英 계열 |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吳文炳의 鍼灸大成, 鍼方六集 |
| 靈樞註證發微 계열 |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
| 類經圖翼 계열 | 類經圖翼,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
| 鍼灸原樞 계열 | 鍼灸原樞 |

에서 臟腑總圖를 다루었으나 臟腑分圖는 다루지 않았고, 또 『難經』과의 관련성은 알려지지 않았다.

집필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臟腑分圖가 실린 서적 33종을 수집하고서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를 3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먼저 黃龍祥이 제시한 臟腑分圖 계열분류 기준을 분석하여 서적 33종을 그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다. 그 결과로 얻은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 29종을 형태인자(있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로 나누어 계열에 따라 어떤 變異가 나타나는지 비교하며, 현대 해부학과 비교하여 肝臟圖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운지 비교하며, 끝으로 肝臟圖에 영향을 끼친 문헌과 비교하였다.

II. 자료 및 연구대상

본 논문에서 다룬 그림은, 집필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중국, 일본의 臟腑分圖를 대상(기존 연구에서 臟腑分圖가 실려 있다고 알려진 서적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수집함)으로 한정하였는데, 해당 서적은 아래와 같다.

『鍼灸聚英』(1529), 『古今醫統大全』(1570), 『鍼灸原樞』(1573), 『靈樞註證發微』(1580), 楊繼洲의 『鍼灸大成』(1601), 吳文炳의 『醫家赤帙益辨全書』(1605 전후), 『三才圖會』(1607), 『經絡考』(1609), 『鍼方六集』(1618), 『願生微論』(1618), 『福壽丹書』(1624), 『類經圖翼』(1624), 『經絡滙編』(1628), 『丹臺玉案』(1636), 『醫宗必讀』(1637), 『藏府指掌圖書』(明代), 『醫學原始』(明代), 『藏府證治圖說人鏡經』(1662), 『身經通考』(清代), 『(新編)鍼灸要法指南』(1686, 日本), 『鍼灸拔萃大成』(1699, 日本), 『和漢三才圖會』(1712, 日

本), 『醫部全錄』(1725), 『醫宗金鑑刺灸心法要訣』(1742), 『鍼灸重寶記』(1749, 日本), 『瘍醫大全』(1760), 『解體發蒙』(1816), 『經穴纂要』(1810, 日本), 『醫林改錯』(1830), 『經絡相法』(清代), 『傳悟靈濟錄』(1869), 『經脈圖考』(1878), 『中西匯通醫經精義』(1892) 등 33종이다¹⁶⁾.

위의 서적 중 다수의 출판사에서 복수로 출판된 경우,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서적 중에서 가능하면 판본이 오래된 것을 사용하였다¹⁷⁾.

黃龍祥이 언급한 吳文炳의 『鍼灸大成』(1605)은 집필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으며, 『醫方類聚』의 五臟六腑圖와 『東醫寶鑑』의 五臟圖는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分圖와의 상관성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III. 결론

黃龍祥은 明堂臟腑圖源流(Table 1)¹⁸⁾에서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圖(臟腑總圖 및 臟腑分圖) 14종을 『鍼灸聚英』, 『靈樞註證發微』, 『類經圖翼』, 『鍼灸聚英』의 4가지 계열로 분류하였다.

그는 Table 1과 별도로 『中國鍼灸史圖鑑』에 현대적 해부학에서 기원한 臟腑分圖 3종(『解體發蒙』, 『醫林改錯』, 『中西匯通醫經精義』)을 추가하여 총 17종을 수록하였다.

16) () 안의 숫자는 서적이 처음 출간되었다고 알려진 시기임.

17) 다만 『鍼灸大成』은 續修四庫全書 판본이 더 오래되었으나 대성문화사에서 간행한 판본의 그림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대성문화사 출판본의 그림이 더욱 선명하므로 대성문화사 출판본을 사용하였다.

18)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30.

15) 靳士英. 五臟圖考. 中华医史雜誌. 1994. 24(2). pp.68-77.

본 연구에서는 『中國鍼灸史圖鑑』에 실린 臟腑分圖 17종 중 집필 당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吳文炳의 『鍼灸大成』 1종을 제외한 16종에, 다시 별도로 수집한 17종(『醫家赤幟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 『經絡滙編』, 『丹臺玉案』,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藏府證治圖說人鏡經』, 『身經通考』,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瘍醫大全』, 『經穴纂要』)을 다시 추가하였다.

黃龍祥은 『鍼灸聚英』, 『靈樞註證發微』, 『類經圖翼』, 『鍼灸原樞』 중 어떤 서적을 인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계열을 분류하였다.

그러나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分圖는 형태가 비슷하고 계열에 따라 속성이 일정하지 밝혀지지 않으므로 단순히 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다. 또한 臟腑分圖가 실려 있는 서적 자체에 무엇으로부터 인용하였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따라서 계열이 밝혀지지 않은 서적 17종에 대해 추가로 분류하려면, 먼저 黃龍祥이 明堂臟腑圖를 분류한 기준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明堂臟腑圖源流에서 제시한 동일계열 서적들을 참고하면, 그가 채택한 계열분류 기준을 이끌어 낼 수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르면 새롭게 수집한 臟腑分圖의 계열을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수집한, 계열이 밝혀지지 않은 臟腑分圖 17종을 黃龍祥의 기준을 참고하여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1. 臟腑分圖 33종의 분류

(1)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分圖 14종에 대한 계열 분류 기준

明堂臟腑圖源流에서 제시한 4가지 계열의 대표서적(『鍼灸聚英』, 『靈樞註證發微』, 『類經圖翼』, 『鍼灸聚英』)으로부터 분류기준이 될 만한 요소를 뽑아내고, 그것이 다시 그가 제시한 동일계열 서적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분류기준으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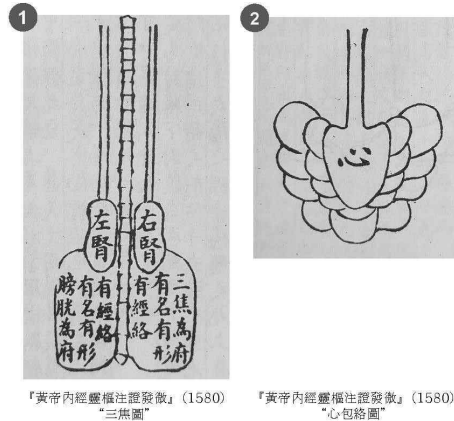
첫째, 『鍼灸聚英』은 五臟이 먼저 배열되고 六腑가 나중에 배열되는 순서로 10쪽의 臟腑分圖로 구성되어 있으며, 心包圖와 三焦圖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계열은 대체로 肝-膽, 心-小腸, 脾-胃, 肺-大腸, 腎-膀胱처럼 五行相生(木-火-土-金-水)의 순서를 따랐다.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鍼方六集』(吳文炳의 『鍼灸大成』은 구할 수 없으므로 확인하지 못함) 모두 五行相生(木-火-土-金-水)의 순서와 臟腑表裏 순서로 그림이 배열되어 있고, 心包圖와 三焦圖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臟腑分圖가 10쪽의 그림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적은 『鍼灸聚英』 계열로 분류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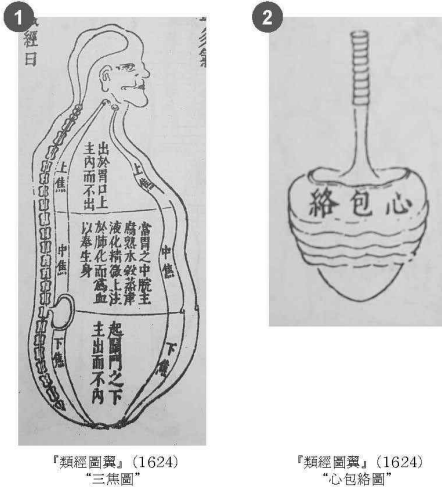
둘째, 『靈樞註證發微』에 실려 있는 三焦圖에는 오른쪽 腎臟 아래에 脂膜으로 三焦가 묘사되어 있으며, 心包絡圖에는 心臟 외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心包絡이 묘사되어 있다. 『三才圖會』, 『經絡考』 모두 동일한 형태의 三焦圖와 心包絡圖가 실려 있다. 『靈樞註證發微』의 三焦圖와 心包絡圖는 Fig. 1과 같다.

Fig. 1. Diagrams of tripple energizers and pericardium(from *Leijingtuyi*)



셋째, 『類經圖翼』에 실려 있는 三焦圖에는 臟腑 전체를 둘러싼 外膜으로 三焦가 묘사되어 있으며, 心包絡圖에는 가로방향의 4줄의 心包絡이 묘사되어 있다. 『醫宗金鑑』,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모두 동일한 형태의 三焦圖와 心包絡圖가 실려 있다. 『類經圖翼』의 三焦圖와 心包絡圖는 Fig. 2와 같다.

Fig. 2. Diagrams of tripple energizers and pericardium(from *Zhuzhengfawei*)



넷째, 『鍼灸原樞』에 실려 있는 三焦圖에는 몸의 상부와 하부 사이를 관통하는 원통 모양으로 三焦가 묘사되어 있다. 또 心包圖를 대신하여 胞絡圖가 있다.

『鍼灸原樞』계열에 속하는 서적은 『鍼灸原樞』 자체 외에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靈樞註證發微』 계열, 『類經圖翼』 계열, 『鍼灸原樞』 계열은 三焦의 묘사가 서로 다르지만, 이 계열들은 12쪽의 臟腑分圖로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 『靈樞註證發微』 계열, 『類經圖翼』 계열은 肺-大腸-胃-脾-心-小腸-膀胱-腎-心包-三焦-膽-肝처럼 經脈의 순환 순서에 따른 구조로 그림이 배열되어 있고 모두 12쪽의 臟腑分圖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鍼灸原樞』는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고 도판만을 얻을 수 있기에, 臟腑分圖의 배열순서가 經脈의 순환 순서를 따르고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론적으로,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分圖를 4가지 계열로 분류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臟腑分圖가 10쪽이라면 『鍼灸聚英』 계열에 속하며, 12쪽이라면 나머지 3가지 계열에 속한다.

둘째, 三焦, 心包絡에 대한 묘사로 구분할 수 있다. 『靈樞註證發微』 계열, 『類經圖翼』 계열은 각각 묘사가 매우 다른 三焦圖, 心包絡圖를 싣고 있다.

셋째, 『鍼灸原樞』 계열은 心包絡圖를 대신하여 胞絡圖가 있다.

(2) 臟腑分圖 서적 17종에 대한 추가 분류

본 연구에서 다룬 臟腑分圖가 실린 33종 서적 중 계열이 밝혀지지 않은 서적(총 17종)에 대해 앞서 분석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鍼灸聚英』 계열: 『醫家赤幟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藏府證治圖說人鏡經』, 『身經通考』 등 6종

『靈樞註證發微』 계열: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등 2종

『類經圖翼』 계열: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 『瘍醫大全』 등 8종

현대적 해부학에서 기원한 서적: 『經穴纂要』 1종

총 33종 서적에 대해 위의 결과(『經穴纂要』를 제외한 16종)를 반영하고, 黃龍祥이 明堂臟腑圖 기원으로 분류한 서적(14종 중 吳文炳의 『鍼灸大成』을 제외한 13종)을 포함하면, 明堂臟腑圖 기원 서적 29종을 얻을 수 있다.

총 33종 서적의 臟腑分圖에 대해 Table 1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류하면 Table 2와 같다. 추가로 분류한 17종 서적은 굵은 색으로 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肝臟圖 33종에 대한 분류는 Table 2를 따르며, 그 중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 29종을 4가지 계열로 분류하면 Fig. 4 ~ Fig. 7과 같고, 현대적 해부학에 기원한 肝臟圖(4종)는 Fig. 8과 같다.

2. 肝臟圖 29종의 비교

肝臟圖 29종(Fig. 4 ~ Fig. 7)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하여 대체로 나뭇잎을 닮아서 서로 비슷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이에 肝臟圖 29종을 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로 나누어 계열에 따라 어떤 변이가 일어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Table 2. Categorization of diagrams of viscera and bowels

| 분류 | | 소속 서적 | 종수 |
|------------|-----------|--|----|
| 明堂臟腑圖기원 | 鍼灸聚英 계열 |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醫家赤帙益辨全書, 鍼方六集, 願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藏府證治圖說人鏡經, 身經通考 | 10 |
| | 靈樞註證發微 계열 |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 5 |
| | 類經圖翼 계열 |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瘍醫大全,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 13 |
| | 鍼灸原樞 계열 | 鍼灸原樞 | 1 |
| 현대적 해부학 기원 | | 解體發蒙, 經穴纂要, 醫林改錯, 中西匯通醫經精義 | 4 |
| 합계 | | | 33 |

(1) 잎의 모양

대체로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¹⁹⁾의 잎이 7개가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는 끝(leaf tips)에 6개의 홈이 있어서 7개로 갈라진 모양의, 1개의 단풍잎처럼 보이기도 한다.

식물생태학의 관점에서 볼 때, 7개의 잎으로 본다면 잎자루가 7개가 있어야 하고, 엽선(leaf tips)이 7개로 갈라진 단풍잎으로 본다면 잎자루가 1개이므로 잎의 개수는 1개이다.

이 특징은『鍼灸聚英』에서 발견된 후로『鍼灸原樞』, 『靈樞註證發微』,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을 제외하고 모든 그림에서 발견되고 있다. 『鍼灸原樞』는 다른 서적에 비해 나뭇잎과 덜 비슷하고, 『靈樞註證發微』는 7개의 불규칙한 덩어리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고,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은 2개의 덩어리(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음)로 묘사되어 있다.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잎 모양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계열과 구분할 수 있는 동일 계열의 공통적인 속성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靈樞註證發微』와 동일계열인 『三才圖會』, 『經絡考』에는 『靈樞註證發微』의 속성(불규칙한 덩어리

리 모양)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鍼灸聚英』의 속성(나뭇잎 모양)을 따랐으며,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도『鍼灸聚英』, 『類經圖翼』의 속성(나뭇잎 모양)을 따랐다. 『臟腑證治圖說人鏡經』(Fig. 4-9)은『鍼灸聚英』의 속성(7개의 나뭇잎 모양)을 따르지 않았지만, 다른 臟腑圖는『鍼灸聚英』과 비슷하다.

이로써『鍼灸原樞』, 『靈樞註證發微』를 제외하고 모든 肝臟圖는『鍼灸聚英』의 나뭇잎 모양을 模寫한 뒤로 대체로 계열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나 해당계열의 특징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Table 3과 같다.

(2) 잎의 개수

식물생태학의 관점에서 볼 때, 잎자루가 1개이므로 잎의 개수는 1개이다. 그러나 肝臟圖의 附記(左三葉, 右四葉)로 판단할 때 당시의 醫家들은 7개의 잎을 나타내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잎자루에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단풍잎으로 판단하면 잎의 개수는 1개이며, 잎의 개수가 7개로 판단하면 잎자루가 7개가 있어야 하므로, 肝臟圖에서 전달하려는 의도(7개의 잎에 1개의 잎자루)와 같은 나뭇잎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잎의 경계에 대한 묘사가 대체로 뚜렷하여 葉의 개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肝臟圖에서 잎의 개수는 모두 7개로 표현되어 있고, 좌우가

19) 나뭇잎을 잎의 모양에 따라 침형, 선형, 넓은선형, 피침형, 거꿀피침형, 타원형, 광타원형, 장타원형, 난형, 도란형, 심장형, 거꿀심장형, 신장형, 원형, 아원형, 쉼기형, 주걱형 등으로 분류한다.

Table 3. Modification of shape of leafs in 29 diagrams of Liver

| 잎 모양 變異 계열 | 나뭇잎과 흡사 | 나뭇잎과 조금 유사 | 덩어리 모양 |
|---------------|--|---------------|-----------|
| 鍼灸聚英 |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醫家赤幟益辨全書, 鍼方六集,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身經通考 | - | 臟腑證治圖說人鏡經 |
| 靈樞註證發微 | 三才圖會, 經絡考,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 - | 靈樞註證發微 |
| 類經圖翼 |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瘍醫大全,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 - | - |
| 鍼灸原樞 | - | 鍼灸原樞 | - |

비교적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각각 4개, 3개로 표현되어 있다. 여기에서 肝臟圖에서 표현한 좌우는 관찰자 기준의 좌우와는 반대로 되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특징은 『鍼灸聚英』에서 발견된 후로 『靈樞註證發微』, 『臟腑證治圖說人鏡經』, 『瘍醫大全』을 제외하고 모든 그림에서 발견되고 있다.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잎의 개수를 비교하면, 서로 다른 계열과 구분할 수 있는 동일 계열의 공통적인 속성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靈樞註證發微』는 본래 불규칙한 덩어리로 묘사되어 있지만 좌우로 각각 4개, 3개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으며,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은 크고 작은 2개의 덩어리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고, 『瘍醫大全』은 잎의 테두리와 잎맥의 묘사가 중첩되어 있으며 좌우에 대한 구분도 모호하여 肝葉의 개수가 7개인 지 분명치 않으며, 그에 따라 左葉, 右葉의 개수도 분명하지 않다.

이로써 『臟腑證治圖說人鏡經』, 『瘍醫大全』을 제외하고 모든 肝臟圖는 『鍼灸聚英』의 肝葉 개수(7개)를 따라 동일함을 알 수 있다.

(3) 잎맥

잎맥은 대체로 주맥과 측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물 모양²⁰⁾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특징은 『鍼灸聚英』에서 발견된 후로 『鍼灸原

樞』, 『靈樞註證發微』,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을 제외하고 모든 그림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잎맥에 대한 세부묘사는 그림마다 동일하지 않다.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잎맥을 비교하면, 서로 다른 계열과 구분할 수 있는 동일 계열의 공통적인 속성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鍼灸原樞』에는 잎맥을 전혀 표시하지 않았으며, 『靈樞註證發微』 계열의 『三才圖會』, 『經絡考』, 『醫部全錄』과 『類經圖翼』 계열의 『瘍醫大全』에는 주맥과 측맥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며, 『類經圖翼』 계열의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傳悟靈濟錄』에는 다른 서적보다 측맥이 무성하게 묘사되어 있다.

『靈樞註證發微』에는 본래 나뭇잎 모양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잎맥의 묘사는 발견되지 않으나 『靈樞註證發微』와 동일한 계열의 肝臟圖에는 그 속성을 따르지 않았다. 또한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은 본래 나뭇잎 모양을 따르지 않았으므로 잎맥의 묘사는 발견되지 않았다.

『靈樞註證發微』의 肝臟圖(Fig. 5-①)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다른 그림과 그 묘사가 판이하기 때문에 혹시 근래에 다시 그려 넣은 그림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RISS의 검색을 통해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다른 출판사에서 간행한 서적²¹⁾의

21)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靈樞註證發微』는 모두 馬元臺와 張隱庵의 注釋을 합본한 『黃帝內經素問靈樞合編』이며, 그 출판사와 발행연도는 掃葉山房(1910), 錦章圖書局(1910, 1926, 1800년대), 裕昌德書店(1960), 成輔社(1975, 1976), 교육주보사(1975), 台聯國風出版社(1967, 1977, 1981), 醫學公會(未詳), 廣益書局(未詳), 藏志桐署齋(未詳), 출판사 미상(未詳) 등이 있지만 모두 동일한 판본을 영인

20) 식물의 잎에 있는 관다발을 말하는 것으로, 잎맥의 종류는 그물맥(망상맥), 평행맥(평행맥), 차상맥, 장상맥(손모양맥) 등으로 나뉜다. 잎맥은 중심부의 주맥과 좌우로 갈라진 측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4. Modification of veins of leaf in 29 diagrams of Liver

| 잎맥의 變異 계열 | 주맥+ 측맥 | 주맥+ 무성한 측맥 | 주맥, 측맥 구분되지 않음 | 잎맥 없음 |
|--------------|---|--------------------|-------------------|---------------|
| 鍼灸聚英 |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醫家赤幟益辨全書, 鍼方六集,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身經通考 | - | - | 臟腑證治圖說 人鏡經 |
| 靈樞註證發微 | 和漢三才圖會 | - | 三才圖會, 經絡考, 醫部全錄 | 靈樞註證發微 |
| 類經圖翼 |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經絡相法, 經脈圖考 |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傳悟靈濟錄 | 瘍醫大全 | - |
| 鍼灸原樞 | - | - | - | 鍼灸原樞 |

그림을 검토한 결과, 모두 동일한 판본이었다.

『中國鍼灸史圖鑑』에 『靈樞註證發微』의 心包絡圖, 三焦圖는 소개했지만 肝臟圖는 실려 있지 않았다. 그 책의 心包絡圖, 三焦圖를 앞서 구한 『靈樞註證發微』의 그림들과 비교한 결과, 서로 다르지 않으므로 서로 다른 판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 실은 그림(Fig. 5-①)과 다른 형태의 肝臟圖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의 肝臟圖(Fig. 4-⑨) 역시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다른 그림과 그 묘사가 판이하지만 다른 臟腑圖는 『鍼灸聚英』의 그림과 서로 비슷하다.

이로써 『鍼灸原樞』, 『靈樞註證發微』, 『瘍醫大全』을 제외하고 모든 肝臟圖는 『鍼灸聚英』의 잎맥을 模寫한 뒤로 대체로 계열에 따라 그 묘사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나 계열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Table 4와 같다.

(4) 잎자루

잎자루²²⁾는 대체로 굵은 튜브(tube) 또는 원기둥(cylinder) 모양이며, 모두 위로 향하고 있다. 이 특징은 『鍼灸聚英』에서 발견된 후로 모든 그림에서 발견되고 있다.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잎자루를 비교하면, 서로

한 것이다.

22) 葉柄이라고 하며, 잎몸과 줄기를 연결하는 부분이다.

다른 계열과 구분할 수 있는 동일 계열의 공통적인 속성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다.

다만 잎자루의 길이가 『鍼灸聚英』 계열에는 『古今醫統大全』, 『鍼方六集』을 제외하고 모두 비교적 길게 표현되어 있고, 『類經圖翼』 계열, 『鍼灸原樞』 계열에서는 비교적 짧게 표현되어 있다. 『靈樞註證發微』 계열 중 『靈樞註證發微』와 『和漢三才圖會』에서는 비교적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三才圖會』, 『經絡考』, 『醫部全錄』에서는 비교적 길게 표현되어 있다.

이로써 모든 肝臟圖는 『鍼灸聚英』의 잎자루를 模寫한 뒤로 계열에 따라 그 길이가 달라지는 경향이 있으나 계열을 따르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간단히 나타내면 Table 5와 같다.

(5) 계열에 따른 變異 분석 - 계열간의 交叉性

黃龍祥은 臟腑分圖가 『鍼灸原樞』를 제외하고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나왔다는²³⁾ 견해를 밝혔다. 이는 『鍼灸原樞』에는 『鍼灸聚英』과 다른 종류의 明堂臟腑圖를 실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그의 견해를 肝臟圖 29종으로부터 검토한 결과, 『鍼灸聚英』 계열 9종, 『類經圖翼』 계열 13종, 『靈樞註證發微』 계열 4종은 유사도가 높지만, 『靈樞註證發微』 1종, 『鍼灸原樞』 1종, 『臟腑證治圖說人鏡經』

23)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30. “‘明堂’類 鍼灸書籍에 그려진 明堂圖는 … 明代 萬曆 吳嘉言의 『鍼灸原樞』를 제외하고 모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나왔다.”

Table 5. Modification of petioles of leafs in 29 diagrams of Liver

| 잎자루의 變異 계열 | 긴 잎자루 | 짧은 잎자루 |
|---------------|--|--|
| 鍼灸聚英 | 鍼灸聚英, 楊繼洲의 鍼灸大成, 醫家赤幟益辨全書, 顧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臟腑證治圖說人鏡經, 身經通考 | 古今醫統大全, 鍼方六集 |
| 靈樞註證發微 | 三才圖會, 經絡考, 醫部全錄 | 靈樞註證發微, 和漢三才圖會 |
| 類經圖翼 | - | 類經圖翼, 經絡匯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瘍醫大全,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
| 鍼灸原樞 | - | 鍼灸原樞 |

1종은 유사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그 중 『瘍醫大全』(『類經圖翼』 계열)은 해당 계열(『類經圖翼』)의 다른 肝臟圖에 비하여 묘사가 거칠다.

따라서 『鍼灸聚英』의 肝臟圖은 『鍼灸聚英』 계열 9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고(『鍼灸聚英』을 직접 인용함), 『靈樞註證發微』 자체를 제외한 『靈樞註證發微』 계열 4종과 『類經圖翼』 계열 13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鍼灸聚英』 肝臟圖을 변형한 서적을 다시 인용함)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계열분류를 고려하여 잎 모양, 잎의 개수, 잎맥, 잎자루를 비교하면, 서로 다른 계열과 구분할 수 있는 동일 계열의 공통적인 속성은 뚜렷하게 발견할 수 없었다.

또한 『鍼灸原樞』만 『鍼灸聚英』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靈樞註證發微』도 肝葉을 7개로 나눈 것과 잎자루를 묘사한 것 외에 『鍼灸聚英』과 그다지 닮은 점이 없었고,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은 肝葉을 2개로 묘사하여 그림 자체가 아예 다르다. 즉, 肝臟圖에 한해서는 ‘臟腑分圖가 『鍼灸原樞』를 제외하고 모두 … 『鍼灸聚英』으로부터 나왔다.’는 黃龍祥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肝臟圖 29종에 대해 형태인자(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 등)로 분류하면, 『鍼灸聚英』, 『靈樞註證發微』, 『鍼灸原樞』, 『臟腑證治圖說人鏡經』 등 네 부류로 귀납할 수 있다. 그 중 『靈樞註證發微』, 『鍼灸原樞』,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의 肝臟 형태를 따른

서적은 해당서적 외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肝臟圖 29종에서 다른 계열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동일 계열의 공통적인 속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형태인자에 따라 분류하면 다른 계열의 속성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났다.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Table 6과 같다.(동일계열의 공통속성은 음영을 넣어 표시하였다.)

Table 6과 같이, 『靈樞註證發微』 계열의 『三才圖會』(1607), 『經絡考』(1609)에서 『靈樞註證發微』의 속성(불규칙한 덩어리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鍼灸聚英』(1529)의 속성(나뭇잎 모양)이 나타나며, 그 계열의 『和漢三才圖會』(1712), 『醫部全錄』(1725)에서 『鍼灸聚英』, 『類經圖翼』(1624)의 속성(나뭇잎 모양)이 나타난다.

이처럼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가 29종으로 模寫되는 과정에서 해당계열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다른 계열의 속성이 나타나는 현상을 ‘계열간의 交叉性’이라고 부를 수 있다.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의 계열 사이에서 이러한 交叉性이 나타나는 까닭은 무엇일까?

『三才圖會』, 『經絡考』의 저자는 『靈樞註證發微』의 臟腑分圖 12쪽을 인용할 때, 『靈樞註證發微』의 肝臟圖(불규칙한 7개의 덩어리로 묘사됨)를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鍼灸聚英』의 肝臟圖(나뭇잎 모양으로 묘사됨)를 선택하였으며,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의 저자는 『鍼灸聚英』(나뭇잎 모양이지만 잎자

Table 6. Crossing features among 4 filiations in 29 diagrams of liver

| 서적 | 잎의 모양 | 잎의 개수 | | 잎맥 (주맥, 측맥) | 잎자루 (길이) |
|-------------|------------|-------|----|----------------|-------------|
| | | 좌 | 우 | | |
| 『鍼灸聚英』 계통 | | | | | |
| 鍼灸聚英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긴 잎자루 |
| 古今醫統大全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鍼灸大成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긴 잎자루 |
| 醫家赤幟益辨全書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긴 잎자루 |
| 鍼方六集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頤生微論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긴 잎자루 |
| 福壽丹書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긴 잎자루 |
| 丹臺玉案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긴 잎자루 |
| 臟腑證治圖說人鏡經 | 덩어리 모양 | 1 | 1 | 잎맥 없음 | 긴 잎자루 |
| 身經通考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긴 잎자루 |
| 『靈樞註證發微』 계통 | | | | | |
|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 덩어리 모양 | 3 | 4 | 잎맥 없음 | 짧은 잎자루 |
| 三才圖會 | 나뭇잎과 흡사 | 3 | 4 | 구분 없음 | 긴 잎자루 |
| 經絡考 | 나뭇잎과 흡사 | 3 | 4 | 구분 없음 | 긴 잎자루 |
| 和漢三才圖會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醫部全錄 | 나뭇잎과 흡사 | 3 | 4 | 구분 없음 | 긴 잎자루 |
| 『類經圖翼』 계통 | | | | | |
| 類經圖翼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經絡滙編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醫宗必讀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藏府指掌圖書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醫學原始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新編)鍼灸要法指南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鍼灸拔萃大成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醫宗金鑑 | 나뭇잎과 흡사 | 3 | 4 | 무성한 측맥 | 짧은 잎자루 |
| 鍼灸重寶記 | 나뭇잎과 흡사 | 3 | 4 | 무성한 측맥 | 짧은 잎자루 |
| 瘍醫大全 | 나뭇잎과 흡사 | 명확치 | 없음 | 구분 없음 | 짧은 잎자루 |
| 經絡相法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傳悟靈濟錄 | 나뭇잎과 흡사 | 3 | 4 | 무성한 측맥 | 짧은 잎자루 |
| 經脈圖考 | 나뭇잎과 흡사 | 3 | 4 | 주맥+ 측맥 | 짧은 잎자루 |
| 『鍼灸原樞』 계통 | | | | | |
| 鍼灸原樞 | 나뭇잎과 조금 유사 | 3 | 4 | 잎맥 없음 | 짧은 잎자루 |

루가 길) 또는 『類經圖翼』(나뭇잎 모양이지만 잎자루가 짧음)을 선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三才圖會』, 『經絡考』의 저자들이 『靈樞註證發微』의 臟腑分圖를 인용할 때, 『鍼灸聚英』의 肝臟圖가 옳다고 판단했고, 『類經圖翼』이 등장한 뒤로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의 저자들이 『類經圖翼』의 肝臟圖가 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臟腑分圖를 인용할 때 계열이 다른 肝臟圖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에서는北宋 이후로 『醫林改錯』(1830)이 등장하기 전까지 새롭게 해부를 시행한 기록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으며²⁴⁾ 中西匯通을 주장한 唐宗海

24) 余璇, 陈凤国, 赵国平. 试论古代中国解剖学史. 山东中医药

의 『中西匯通醫經精義』에 실린 肝臟圖와 비교해 보아도 『靈樞註證發微』의 肝臟圖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靈樞註證發微』 肝臟圖에 묘사된 肝臟의 형태가 그 당시의 인식, 즉 肝臟은 나뭇잎 모양으로 생겼다는 당시 상식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따라서 『靈樞註證發微』의 臟腑分圖 12폭을 模寫할 때 『靈樞註證發微』를 인용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類經圖翼』이 등장한 뒤에는 『鍼灸聚英』보다 『類經圖翼』을 더 신뢰하였을 것이다.

明堂臟腑圖 기원 臟腑分圖가 模寫되었던 당시에 중국에서 해부가 시행되었다는 기록이 없음은 선행 연구²⁵⁾에서 이미 밝혀져 있다. 그들은 肝臟의 형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므로 肝臟圖를 模寫할 때 선택한 기준은 그들이 인용한 서적의 신뢰도였을 것이다.

결국, 그들이 『靈樞註證發微』 또는 『鍼灸聚英』의 臟腑分圖를 模寫하던 중 의심스런 그림을 만났을 때, 이미 인용했던 서적(『靈樞註證發微』, 『鍼灸聚英』)보다 당시에 신뢰도가 더 높다고 여겨진 서적(『類經圖翼』)을 인용한 것이다. 그로 인해 ‘계열간의 交叉性’이 나타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잎 모양의 變異에서 발견될 뿐만 아니라, 잎맥과 잎자루의 變異에서도 발견된다.(Table 6 참조)

한편 『靈樞註證發微』의 肝臟圖는 馬蒨가 직접 관찰을 통해 불규칙한 7개의 덩어리처럼 묘사한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지만, 그 추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그의 저서에서 발견할 수 없었다. 또 그 肝臟圖에 표현된 입체감은 동시대의 다른 肝臟圖에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그림이 明代 그림인지조차 의심케 한다.

또한 저자가 자신의 서적에서 서로 다른 계열의 肝臟圖를 동시에 수록한 경우도 있다. 가령 李中梓는 『頤生微論』(1618)과 『醫宗必讀』(1637)에서 각각 肝臟圖를 실고 있는데, 『頤生微論』의 肝臟圖는 『鍼

灸聚英』 계열에 속하고 『醫宗必讀』의 肝臟圖는 『類經圖翼』 계열에 속한다.

李中梓가 模寫한 肝臟圖 2종은 그 형태가 많이 닮아있지만 잎자루의 길이가 뚜렷하게 다르다. 즉 『頤生微論』의 肝臟圖의 잎자루는 비교적 길지만 『醫宗必讀』의 肝臟圖는 그에 비하면 짧게 묘사되어 있다.(Table 5, Fig. 4-⑥, Fig. 6-③)

이런 사실로 미루어 보면, 그는 서로 다른 계열의 肝臟圖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 묘사인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거나 두 그림의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이상을 요약하면, ‘계열간의 交叉性’은 醫家들이 臟腑分圖를 模寫할 때 자신이 인용한 서적의 肝臟圖에 확신하지 못하여 다른 계열의 서적을 인용했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렇다면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肝臟 형태에 대한 인식, 즉 肝은 나뭇잎을 닮았다는 인식은 무엇에서 영향을 받은 것일까? 肝臟圖가 29종으로 變異되는 과정에서 당시 해부관찰이 있었다고 여길 단서를 肝臟圖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또 肝臟圖가 그대로 模寫되지 않고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변형되었을까? 이에 대한 필자의 의견은 아래에서 피력한다.

또한, 이 외에 『臟腑證治圖說人鏡經』에서 나머지 肝臟圖 28종과 달리 肝葉을 2개로 묘사하여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의 공통점에서 크게 벗어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아래에 피력한다.

3. 현대 해부학과 비교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 29종이 실제의 肝臟과 얼마나 비슷하게 묘사되었는지 평가하고자, 4가지 형태인자(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로 나누어 현대 해부학과 비교하였다.

(1) 잎의 모양

7개의 불규칙한 덩어리로 묘사한 『靈樞註證發微』와 2개의 크고 작은 덩어리로 묘사한 『藏府證治圖說人鏡經』과 나뭇잎에 멀게 묘사한 『鍼灸原樞』를 제외하고, 모든 肝臟圖에서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의

大学习报. 2015. 39(6). p.503.

25) 潘萍, 郭义, 王东强. “明堂图”源流简考. 针灸临床杂志. 2008. 24(5). pp.1-4.

잎 모양을 가진 7개의 나뭇잎, 또는 끝(leaf tips)이 7개로 갈라진 모양의 단풍잎으로 묘사하였다.

현대 육안해부학에서는 肝臟 전체를 하나의 역삼각형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肝臟圖와 현대 해부학을 비교하면, 각각 肝의 모양이 매우 다르다.

(2) 잎의 개수

肝葉의 개수가 2개로 표현된 『藏府證治圖說人鏡經』과 肝葉의 개수가 7개인지 명확하지 않은 『癆醫大全』을 제외하고, 모든 肝臟圖에서 肝葉이 그림의 ‘왼쪽에 4개, 오른쪽에 3개’로 묘사되어 있으나 본래 전달하려는 뜻은 ‘左葉이 3개, 右葉이 4개’이다. 이와 같이 좌우가 바뀐 이유는 肝臟圖의 左右는 그림 자체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관찰자의 기준으로 그리거나 감상하는 현대 그림과 다르다.

현대 해부학에서는 肝臟은 간결상간막(ligamentum falciforme hepatis)을 기준으로 왼엽, 오른엽의 2개로 구분하거나 혈액분포를 기준으로 기능적인 왼엽, 오른엽으로 구분한다²⁶⁾.

이처럼 肝臟圖와 현대 해부학에서 각각 肝葉의 개수가 서로 다르고 肝葉의 구분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肝臟圖의 肝葉과 현대 해부학의 간엽(hepatic lobe)은 일치성을 보이지 않는다.

(3) 잎맥

『鍼灸原樞』, 『靈樞註證發微』, 『臟腑證治圖說人鏡經』을 제외하고 모든 肝臟圖에서 발견되는 잎맥은 대체로 주맥과 측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물 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26) 정담 편집부. 해부 병태생리로 이해되는 SIM 통합내과학 (vol. 6). 서울. 정담. 2013. NAVER. [cited at 23th January 2016].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9287&cid=55647&categoryId=55758> “肝臟은 간결상간막(ligamentum falciforme hepatis)에 의해 왼엽, 오른엽의 2개로 구분되는데, 이 개념은 실제 임상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혈액분포로 분류한 왼엽과 오른엽인데 각각 기능적인 왼엽, 오른엽이라고 한다. 좌우의 엽은 다시 2개씩 나뉘는데 우엽은 다시 좌엽은 가쪽구역(lateral division), 안쪽구역(medial division)으로, 우엽은 다시 앞쪽구역(anterior division), 뒤쪽구역(posterior division)으로, 총 4개의 구역(Hepatic segment)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실제 임상에서는 그다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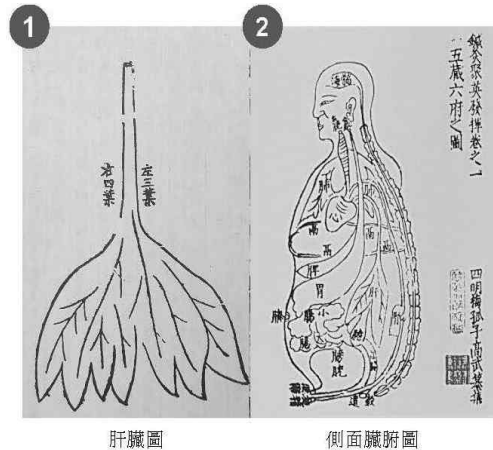
따라서 肝臟圖의 잎맥은 肝의 내부로 그물처럼 뻗은 혈관들, 즉 간정맥(hepatic vein)과 비교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육안해부학에 의하면 간정맥은 肝臟의 표면에서 보이지 않아서 肝臟의 표면은 매우 매끄럽다.

표면에서 보이지 않는 간정맥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이 투영하여 肝臟圖에 나타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그것은 해부를 통해 간정맥(hepatic vein)을 직접 관찰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잎맥은 해부와 같이 직접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일까? 최초의 肝臟圖(『鍼灸聚英』)가 등장하기 이전의 臟腑圖와 대조하면, 무엇으로부터 얻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4) 잎자루

Fig. 3. Compared with general diagram of viscera(in *Zhenjiujuying*)



대체로 굵은 튜브(tube) 또는 원기둥(cylinder) 모양이고 모두 위로 향하고 있는 肝臟圖의 잎자루는 해부학적 구조 중 무엇을 묘사한 것일까?

肝臟圖에 잎자루의 명칭이 없으나 『鍼灸聚英』의 五臟六腑之圖(Fig. 3-②)에서 肝臟의 잎자루가 심과 통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肝膽圖(Fig. 4-①)의 附記(“從心系發來”)에서 心系로부터 이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현대 해부학에서 肝의 위쪽으로 길게 뻗어 나온 튜브(tube) 또는 원기둥(cylinder) 모양의 肝 조직을 발견할 수 없다.

그렇다면 肝臟圖의 膈자루는 무엇을 묘사한 것일까?

첫 번째 가설은 肝門脈을 묘사했다고 보는 것이다. 肝門脈은 肝 자체에서 외부로 뻗어 나온 굵은 튜브(tube) 형태의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肝門脈은 위로 향하지 않았으므로 膈자루로 보기 어렵다.

두 번째 가설은 臍帶의 膈帶를 묘사했다고 보는 것이다. 태아의 시기에 母體로부터 영양을 공급받는 膈帶는 태아의 肝과 직접 통해 있으므로 膈자루는 臍帶의 膈帶를 묘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解體發蒙』(Fig. 8-①의 상부 그림)과 『經穴纂要』(Fig. 8-②)에 肝으로부터 아래로 향한 絲系를 묘사하고, 이를 각각 ‘臍柔筋’, ‘通於臍之系’라고 附記하였는데, 이는 臍帶의 膈帶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 모양이 膈자루와 닮지 않았고 위로 향하지 않았으므로 膈자루로 보기 어렵다.

마지막 가설은 肝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하대정맥(inferior vena cava)을 묘사했다고 보는 것이다. 『解體發蒙』(Fig. 8-①의 하부 그림)에서는 肝의 뒤쪽을 지나 위로 향하여 심장의 우심실과 통하는 대정맥(vena cava)을 묘사하였는데, 그 굵기와 모양이 膈자루와 비슷하고 위로 향하고 있다.

肝臟圖 29종의 膈자루가 굵은 튜브(tube) 또는 원기둥(cylinder) 모양이며 위로 향하고 있는 특징으로 판단할 때, 膈자루는 ‘肝門脈’이나 ‘臍帶’를 묘사하기 보기보다는 肝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하대정맥을 묘사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肝臟圖에서 膈자루는 肝에 속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肝臟의 뒤를 지나가는 하대정맥은 肝臟의 부속물이 아니므로, 膈자루의 묘사는 肝臟의 형태를 잘못 인식한 것이다.

그렇다면 膈자루는 해부와 같이 직접관찰을 통해 얻은 지식일까? 최초의 肝臟圖(『鍼灸聚英』)가 등장하기 이전의 臟腑圖와 대조하면, 무엇으로부터 얻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상으로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 29종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肝臟의 형태인자를 현대 해부학과 비교하였다.

여기에서 유의할 점은 현대 해부학과 견줄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肝臟圖 자체가 그 당시의 해부 관찰이 반영된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肝臟圖를 그린 당시 醫家, 畫工들이 직접 해부하여 그렸다는 史料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肝臟圖의 묘사가 실제와 매우 다르다고 해서 해부관찰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간주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明堂臟腑圖 이전에 해부관찰을 통해 그려졌다고 알려진 煙蘿子內境圖(五代), 歐希範五臟圖(北宋), 存眞圖(北宋)에서 肝臟圖의 형태인자가 일부 발견되므로 肝臟圖 등 臟腑分圖를 그릴 때 그 그림들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肝臟圖 29종처럼 膈의 모양, 개수, 膈맥, 膈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를 모두 갖춘, 매우 구체적인 묘사는 明堂臟腑圖 이전 臟腑圖에서 발견할 수 없다.

4. 문헌과 비교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 29종은 대부분 『鍼灸聚英』으로부터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되었지만, 膈의 모양, 개수, 膈맥, 膈자루에 대한 세부묘사는 계열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는 점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다.

肝臟圖 29종을 그린 醫家, 畫工들은 대상(肝)을 직접 관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鍼灸聚英』의 肝臟圖를 인용할 때 그대로 그리지 않고 변형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

이에 肝臟圖 29종을 膈의 모양, 개수, 膈맥, 膈자루 등 4가지 형태인자로 나누어 『靈樞』, 『難經』, 『華陀玄門內照圖』, 王冰의 注釋 등과 비교함으로써, 肝臟圖의 變異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膈 모양

‘肝葉’이라는 용어는 일찍이 『靈樞』「天年」²⁷⁾에서

나타나고, 『難經·四十二難』에서 肝葉이 모두 7개라고²⁸⁾ 설명하였으며, 王冰이 『素問·五運行大論』의 注釋에서 肝葉은 ‘나무’가 싹트는 모양과 같다고²⁹⁾ 하였다.

『鍼灸聚英』의 肝臟圖에 이르러 『難經·四十二難』은 王冰의 注釋이 반영되어 ‘肝葉은 7개의 나뭇잎과 같다.’는 뜻으로 재해석되었다. 그런 인식은 『鍼灸聚英』의 五臟六腑之圖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 뒤로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 대부분(『靈樞註證發微』,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은 제외) 그것을 따랐을 것이다.

다만 『靈樞註證發微』은 『難經·四十二難』을 附記하고도 肝臟의 형태를 7개의 불규칙한 덩어리를 입체적으로 묘사하였는데, 그 근거는 그의 저서에서 찾을 수 없었다.

錢雷의 『藏府證治圖說人鏡經』(1662)은 나무가 싹이 트는 형상과 같아서 肝葉이 2개라고 설명하고서 동시에 左葉 3개, 右葉 4개로 모두 7葉이라고³⁰⁾ 설명하였지만, 실제로는 肝臟圖에서 肝葉을 크고 작은 2개의 덩어리로 묘사하고 잎맥은 표현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를 그린 저자들은 『靈樞』, 『難經』의 학설, 王冰의 注釋 등에 의하여 대체로(『靈樞註證發微』,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은 제외) 肝葉을 ‘나뭇잎 모양’으로 인식하였고, 肝臟圖에 잎 모양을 묘사함으로써 그 의도를 그림에 공통적으로 반영했을 것이다.

(2) 잎의 개수

肝葉은 『鍼灸聚英』의 肝臟圖에서 좌우로 각각 3개, 4개로 뚜렷하게 표현된 뒤로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 대부분(『靈樞註證發微』,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은 제외) 그것을 따랐을 것이다.

『難經』, 『傷醫大全』은 제외)에서 그것을 따랐는데, 그 근거는 무엇일까?

肝葉의 개수에 대한 기술은 『難經·四十二難』에 “肝은 … 왼쪽에 3개의 葉과 오른쪽에 4개의 葉이 있어서 모두 7개의 葉이다.”³¹⁾라는 내용과 『素問·五運行大論』 王冰 註에 “肝에는 둘로 펼쳐진 葉과 하나의 작은 葉이 있어서 식물의 싹이 트는 모양과 같다.” 또는 “肝은 둘로 벌어진 葉이 있는데 하나는 작은 葉이 있어서 식물의 싹이 트는 모양과 같다.”³²⁾라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肝葉의 개수가 『難經』(총 7개)과 王冰의 注釋(총 3개 또는 2개)에서 서로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것이다. 『難經』과 王冰의 注釋 모두 후대 醫家에 큰 영향을 끼쳤으므로 『難經』의 내용과 王冰의 注釋이 서로 다른 경우, 그들은 고민에 빠졌을 것이다.

그런데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 중 “左三葉, 右四葉”(『難經·四十二難』)을 인용하지 않은 서적은 거의 없다. 심지어 王冰의 注釋에 따라 肝葉을 2개로 묘사한 『藏府證治圖說人鏡經』에서조차 『難經』의 내용을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鍼灸原樞』(1573)와 『經絡相法』(清代)은 도판은 구했으나 서적은 구하지 못했으므로 인용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傷醫大全』은 잎의 개수가 명확히 표현되지 않았다.

요약하면, 明堂臟腑圖를 模寫한 醫家들이 대체로(『靈樞註證發微』, 『藏府證治圖說人鏡經』, 『傷醫大全』은 제외) 肝臟을 묘사할 때 王冰의 注釋(3개 또는 2개의 肝葉)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難經』(7개의 肝葉)을 공통적으로 채택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대부분 王冰의 注釋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 다시 언급하기로 한다.

2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41. “五十歲, 肝氣始衰, 肝葉始薄, 膽汁始減, 目始不明.”

28)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02. “肝, … 左三葉, 右四葉, 凡七葉.”

29)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12. “肝有二布葉, 一小葉, 如木甲拆之象也.”

30) 錢雷. 臟腑證治圖說人鏡經(故宮珍本總刊 vol. 71). 海口. 海南出版社. 2000. p.45. “肝有兩葉, 如木甲拆之象. 又云左三右四, 凡七葉. 言兩葉者, 舉其大, 言七葉者, 盡其詳. 左三右四, 亦自陰陽之義.”

31) 扁鵲(秦越人) 撰. 王九思 集注. 難經集注. 臺北. 臺灣中華書局. 1985. p.202. “肝, … 左三葉, 右四葉, 凡七葉.”

32)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12. “肝有二布葉, 一小葉, 如木甲拆之象也.” 이 문구는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 『東醫寶鑑』의 肝臟圖와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肝臟圖에서 각각 묘사된 肝葉 개수에 근거한 것이다.

(3) 잎맥

肝의 잎맥이 『鍼灸聚英』의 肝臟圖에서 그물 모양의 잎맥이 세밀하게 묘사된 뒤로 대부분의 肝臟圖(『鍼灸原樞』, 『靈樞註證發微』,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은 제외)에서 『鍼灸聚英』을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하였다. 그들이 잎맥을 그려 넣은 근거는 ‘(1) 잎 모양’에서 이미 밝혔다.

Table 4와 같이, 『鍼灸原樞』(1573)에는 잎맥이 표시되지 않았고, 『三才圖會』(1607) 등에는 주맥과 측맥이 구분되지 않았고, 『醫宗金鑑』(1742) 등에는 다른 서적보다 측맥이 무성하게 묘사되어 있다. 즉, 후대로 내려가면서 ‘나뭇잎’의 의미가 강조되는 경향이 일부 나타났다. 그러나 아무도 잎맥의 명칭이나 실체를 설명하지 않았다.

요약하면,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를 그린 저자들은(『鍼灸原樞』, 『靈樞註證發微』,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은 제외) 대체로 잎맥을 그려 넣어 ‘나뭇잎’을 담았다는 의도를 대체로 점점 강화하였지만 그 실체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4) 잎자루

肝의 잎자루가 『鍼灸聚英』의 肝臟圖에서 묘사된 뒤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에 공통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렇다면 첫 肝臟圖(『鍼灸聚英』)를 그린 醫家は 잎자루를 무엇이라고 인식했을까? 『鍼灸聚英』(1529)의 五臟六腑之圖(Fig. 3-②)³³⁾와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附記(“從心系發來”)를 살펴보면, 잎자루를 ‘肝系’로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인식의 근거는 일찍이 明堂臟腑圖 이전의 臟腑總圖(煙蘿子內境圖, 歐希範五臟圖, 存眞圖)와 『華陀玄門內照圖』(1095)³⁴⁾에서 찾을 수 있다.

肝臟圖의 變異 과정에서 잎자루의 길이가 달라졌

는데 臟腑總圖나 『華陀玄門內照圖』에서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또한 『鍼灸原樞』의 附記(“上續于肺管, 絡脈繫於九椎.”)와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附記 외에, 나머지 肝臟圖 모두 잎자루에 대한 설명이 없다.

특히 『鍼灸原樞』는 그 附記(“위로 肺管과 이어졌다.”)로 판단해 볼 때, 心臟과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으므로 『華陀玄門內照圖』의 설명을 참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臟腑總圖와 『華陀玄門內照圖』는 『鍼灸聚英』 肝臟圖에 잎자루가 묘사되는 근거가 되었지만, 그 후 肝臟圖가 變異되는 과정에서 그 길이를 결정하는 근거는 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최초의 肝臟圖(『鍼灸聚英』)가 실제 肝의 형태를 닮지 않고 나뭇잎을 닮게 된 이유와 29종의 肝臟圖로 模寫되는 과정에서 變異가 일어난 근거가 『靈樞』, 『難經』, 王冰의 注釋 등 문헌과 그 신뢰도였으며, 肝臟圖 29종에서 그 당시 해부와 같은 직접관찰을 통해 새롭게 얻은 지식은 발견되지 않았다.

끝으로 덧붙여 肝臟圖의 變異에 문헌이 영향을 줄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중국 고전그림, 즉 동양화의 특성을 언급하고자 한다.

혹자는 明堂臟腑圖(臟腑分圖, 側人臟腑圖)를 해부 관찰의 결과로 간주하여 그 그림에서 발견되는 오류, 예를 들어 7개의 肝葉, 나뭇잎 모양, 심장으로부터 각각 간장, 비장, 신장으로 직접 이어지는 조직(소위 五臟系)에 대해 元代 이후 서양 해부학이 들어오기 전까지 당시 수준에서 최선의 해부학 지식이라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元代 明堂臟腑圖가 明代 『鍼灸聚英』을 통해 전해온 사이에 해부를 시행했다는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 당시 해부관찰을 통해 새롭게 얻어진 지식은 없다.

오히려 臟腑分圖나 側人臟腑圖는 실제대로 묘사되기보다는 그런 사람의 의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그 그림을 통해 인체내부에 대한 당시의 인식을 엿볼 수 있으며, 그 그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오

33) 『鍼灸聚英』의 五臟六腑之圖에는 肝臟의 잎자루가 心과 연결되어 있다.

34) 華陀, 華陀玄門內照圖. 臺北. 自由出版社. 1976. p.32. “五臟系가 모두 心과 통하고 心은 五臟系와 통한다.” “五臟系皆通於心, 心通五臟系, 心之系與五臟之系相連.” 『華陀玄門內照圖』에는 存眞圖가 보존되어 있는데 그 그림에도 五臟系가 心과 통한다는 묘사가 발견된다. 그러나 五臟系가 心과 통한다는 문자 기록은 『華陀玄門內照圖』이전에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류는 도리어 당시의 인식에 공통적인 근거가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는 『鍼灸聚英』에서 처음 등장한 뒤로 꾸준히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되어 여러 그림으로 變異되었는데, 이는 단순히 그림을 정교하게 模寫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당시 醫聖, 大賢으로 추앙되는 上古의 黃帝나 春秋時代의 扁鵲(秦越人), 漢代의 華陀, 唐代의 王冰의 가르침, 즉 『靈樞』, 『難經』과 王冰의 注釋에 따라 肝臟圖를 변형했을 것이다.

그 중 『難經』은 처음에 공인된 이치로 받아들여졌다가 나중에 『難經』의 오류, 모순이 점차 밝혀짐에 따라 의심받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醫家들은 『鍼灸聚英』의 肝臟圖를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할 때 여전히 『難經』을 공인된 이치로 인정하여 그 의도에 부합하도록 변형했을 것이다.

『素問』을 注釋한 공로로 그 당시 大賢으로 평가되던 王冰이 肝葉의 개수에 대해 『難經』과 다른 견해를 피력하였지만,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저자(錢雷)를 제외한, 당시 醫家들은 王冰의 學說을 채택하지 않았다. 그들은 당시 해부 등 직접 관찰을 통해 王冰의 오류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王冰의 수준이 扁鵲(秦越人)에 미치지 못한다는 대중적인 학술평가를 고려하였을 것이다.

도대체 당시 醫家와 畫工이 肝臟圖를 模寫할 때 대상을 그대로 그리지 않고, 문헌에 근거하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하는 행위가 어떻게 용납되었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동양화의 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양화의 특성이란 “대상을 직접 관찰하지 않았으며, 현장에서 곧장 그린 것이 아니라 기억에 의존하여 나중에 그린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며, 聖人에 의해 창시되어 당시에 공인된 이치에 따라 묘사한다는 점”³⁵⁾을 말한다.

다만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저자인 錢雷는 비록 肝臟의 외형을 크고 작은 2개(左葉, 右葉)의 덩어리로만 표현하였지만, 그 左葉과 右葉이 다시 각각 3개, 4개로 세분된 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여겨

서 王冰의 學說(肝葉 2개)과 『難經』의 學說(左葉 3개, 右葉 4개)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특히 그는 肝臟의 7葉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하였는데, 『難經』의 學說(左葉 3개, 右葉 4개, 총 7葉)이 陰陽 이론에서 나왔음을 명확히 지적하였는데³⁶⁾, 즉 左葉 3개는 양(木)을 상징하고 右葉 4개는 음(金)을 상징한다는 것이다.

식물생태학의 관점으로 볼 때, 肝臟圖처럼 잎의 개수가 7개이면서 동시에 잎자루가 1개인 나뭇잎은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오류는 그들이 나뭇잎을 직접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떠올려서 그렸음을 뒷받침한다. 게다가 肝臟圖에 표현된 좌우는 관찰자의 좌우와는 반대로 되어 있는데, 이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릴 대상의 입장에서 그렸기 때문이다.

그 당시 畫工에게는 대상을 직접관찰하지 않고 추측하여 그리거나,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대상과 일체가 된 뒤에 그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런 풍토였다³⁷⁾.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에서 그 이전(北宋) 해부지식의 흔적이 일부 발견될 수 있지만, 元代부터 清代 중엽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해부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시에 해부와 같은 직접관찰로부터 얻어진 새로운 지식은 없었고, 오히려 肝臟圖가 29종으로 模寫되는 과정에서 『靈樞』, 『難經』, 王冰의 注釋 등 문헌에 의해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의도적으로 변형되었다.

36) 錢雷. 藏府證治圖說人鏡經(故宮珍本總刊 vol. 71). 海口. 海南出版社. 2000. p.45. “肝有兩葉, 如木甲拆之象. 又云左三右四, 凡七葉. 言兩葉者, 舉其大, 言七葉者, 盡其詳. 左三右四, 亦自陰陽之義.”

37) 한명식. 예술을 읽는 9가지 시선. 파주. 청아출판사. 2011. p.33. “동양화가는 기억으로 그림을 그린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그리고자 하는 대상을 관찰한다. 이때의 관찰은 서양화가가 대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서양화가는 대상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관찰하지만, 동양화가는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관찰한다. 동양화가는 대상의 본연 속으로 자신을 참여시켜 대상과 자신을 하나 되게 하고, 대상과의 동화가 충분히 일어났을 때 비로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35) 趙學俊. 三焦 形象圖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5. 28(3). p.20.

IV. 요약 및 결론

이상으로 臟腑分圖가 실린 서적 33종을 수집, 분류, 분석, 비교함으로써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가 29종으로 變異된 까닭이 단순히 醫家들이 정밀하게 模寫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1. 臟腑分圖가 실린 서적 33종 중 계열이 밝혀지지 않은 서적 17종의 臟腑分圖에 대해 추가로 분류한 결과, 『鍼灸聚英』 계열은 『醫家赤帙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藏府證治圖說人鏡經』, 『身經通考』 등 6종, 『靈樞註證發微』 계열은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등 2종, 『類經圖翼』 계열은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 『瘍醫大全』 등 8종(이상 16종은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임), 현대적 해부학에 기원한 서적은 『經穴纂要』 1종임을 확인하였다.

2. 明堂臟腑圖 기원 肝臟圖 29종을 4가지 형태인 자(잎의 모양, 개수, 잎맥, 잎자루)로 분석한 결과, 『鍼灸原樞』, 『靈樞註證發微』,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을 제외하고 모두 피침형 또는 장타원형의 잎이 7개 겹쳐있는 모양 또는 끝(leaf tips)이 7개로 갈라진 1개의 단풍잎처럼 표현되어 있는데,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瘍醫大全』을 제외하고 모두 左葉은 4개로 右葉은 3개로 표현되어 있다.(그러나 그림의 의도는 左葉 3개, 右葉 4개이다.) 『鍼灸原樞』, 『靈樞註證發微』, 『瘍醫大全』,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을 제외하고 모든 그림에서 잎맥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 형태는 조금씩 다르다. 잎자루는 『鍼灸聚英』 계열에는 『古今醫統大全』, 『鍼方六集』을 제외하고 모두 길게 표현되어 있으며, 『類經圖翼』 계열, 『鍼灸原樞』 계열에는 짧게 표현되어 있으며, 『靈樞註證發微』 계열 중 『靈樞註證發微』와 『和漢三才圖會』에는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三才圖會』, 『經絡考』, 『醫部全錄』에는 길게 표현되어 있다. 그 중 『靈樞註證發微』, 『藏府證治圖說人鏡經』의 肝臟圖는 다른 그림과 肝臟의 형태가 매우 다르고 입체감이 표현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鍼灸聚英』 肝臟圖를 模寫하지 않았다. 그러나 『靈樞註證發微』의 묘사 근거는 그의 저서에서 발견하지 못하였다.

3. 肝臟圖 29종에서 다른 계열과 구분 지을 수 있는 동일 계열의 공통적인 속성은 비록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형태인자에 따라 분류하면 다른 계열의 속성이 교차로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 이를 ‘계열간의 交叉性’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 현상은 醫家들이 臟腑分圖를 模寫할 때 자신이 이미 인용한 서적의 肝臟圖를 확신하지 못하여 다른 계열의 서적을 인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4. 肝臟圖 29종을 현대 해부학과 비교한 결과, 肝葉의 모양과 개수는 肝臟의 실제 모습과 매우 다르다. 반면에 잎맥은 肝의 내부로 통하는 간정맥(hepatic vein)과 비슷하고, 잎자루는 肝의 뒤쪽에서 위를 향해 지나가는 하대정맥(inferior vena cava)과 비슷하다. 그러나 하대정맥은 실제로 肝臟의 부속물이 아니므로 잎자루는 肝臟圖의 오류이다. 한편 잎맥과 잎자루가 해부처럼 실제관찰에 근거한 지식인지 확인하려면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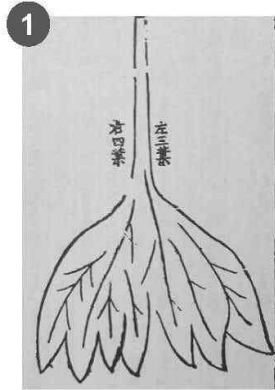
5. 肝臟圖 29종에 문헌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본 결과, 당시 醫家들이 肝臟圖를 模寫할 때 『靈樞』, 『難經』, 王冰의 注釋 등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잎 모양, 잎맥을 미세하게 변형하고 잎의 개수도 다르게 묘사하였다. 이는 당시에 해부를 통한 직접적인 관찰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헌에 근거하여 肝臟圖가 의도적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런 풍토는 그 당시에 매우 당연하고 자연스런 것이었다.

Referen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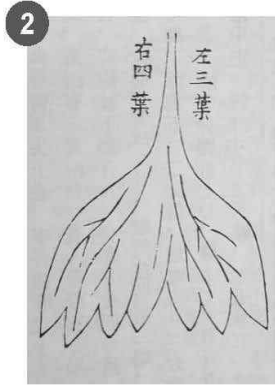
1. Han MS. Nine viewpoint for reading art. Paju. Cheonga Publishing Co. 2011.
2. Hong WS. Jeong Gyo Hwang Je Nae Gyeong Yeongchu. Seoul. Dong Yang Ui Hag Yeon Gu Won. 1985.
3. Hua T. Hua Tuo Xuan Men Nei Zhao Tu. Taipei. Ziyou Publishing Co. 1976.
4. Huang LX ed.. Zhong Guo Zhen Jiu Shi Tu Jian(vol. 1). Beijing. Jingdao Publishing Co. 2003.

5. Ma S. Huang Di Ne Jjing Ling Shu Zhu Zheng Fa Wei. Taipei. Tailiangufeng Publishing Co. 1981.
6. Qian L. Zang Fu Zheng Zhi Tu Shuo Ren Jing Jing(Gu Gong Zhen Ben Zong Kan vol. 71). Haikou. Hainan Publishing Co. 2000.
7. Qin YR original work. Wang JS, et al. annot.. Nanjing Ji Zhu. Taipei. Taiwan Zhonghuashuju. 1985.
8. Wang B. Zhong Guang Bu Zhu Hunag Di Nei Jing Su Wen(in Wang Bing Yi Xue Quan 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9. Han BJ. A Study on drawings in 『Dong-uibogam』.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10.
10. Jeong WY, Jeon BH, Lee JH. Huh Jun's(許浚)Medical Thought Reflected Through the Figure of Body and Viscera(身形臟腑圖) in Donguibogam(東醫寶鑑).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1996. 10(2).
11. Jin SY. Research on Atlas of Viscera. Chinese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4. 24(2).
12. Jo HJ. Comparing Atlases of Tripple Energizer(三焦).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5. 28(3).
13. Kim DH, Ahn SW. The study about the Author and Formation-Comparison of 「OhJangYukBuDo」 quoted by 「Euibangyoochui」.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2003. 16(1).
14. Kim DH. 「Ojangukbudo五臟六腑圖」 cited in 「Euibangyuchwi醫方類聚」: A Study in Terms of Medical History Science.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06.
15. Kim TU, Yoon JH. A study on the Association between the Figure of Body and Viscera(身形臟腑圖) in Donguibogam(東醫寶鑑) and Essence, Spirit, Qi. The Journal Of Korean Qigong Medical Society. 2007. 10(1).
16. Lee MC, Park KN, Maeng WJ. A Study on the Figures of Viscera(臟腑圖) in Sancaituhui(『三才圖會』 encyclopaedia illustrations about the all things in nature) by Wang Qi(王圻) of Ming-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7. 20(2).
17. Pan P, Guo Y, Wang DQ. A concise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Mingtang Chart”.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08. 24(5).
18. Sung MG, Jeong CH. A Comparative study on Sinhyeongjangbudo(身形藏府圖) -By the Standard of Sinhyeongjangbudo(身形藏府圖) in 『Donguibogam(東醫寶鑑)』.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08. 21(3).
19. Sung MG. A study of Donguibogam ShinhyungJangbudo - a human body Figure of Donguibogam. Graduate school of Kyung Hee University. 2009.
20. Woo JJ. A Genealogical study on Donguibogam Shinhyungjangbudo. Pan-Korean Philosophy. 2012. 64.
21. Yu X, Chen FG, Zhao GP. A Tentative Talk about the Ancient History of TCM Anatomy.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 of TCM. 2015. 39(6).
22. Jeongdam compilation committee. Steps to internal medicine(vol. 6). Seoul. Jeongdam Publishing Co. 2013. NAVER. [cited at 23th January 2016]. Available from: URL:<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839287&cid=55647&categoryId=55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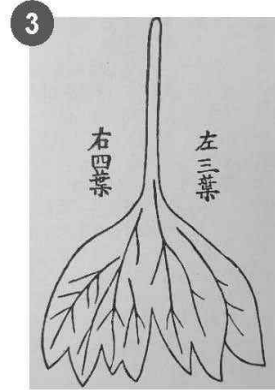
Fig. 4. Diagrams of liver affiliated to *Zhenjiujuying*(『鍼灸聚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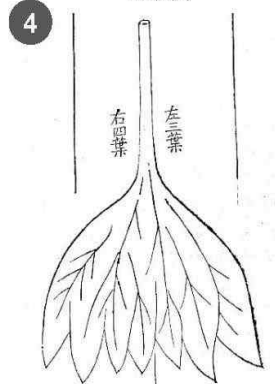
『鍼灸聚英』(1529)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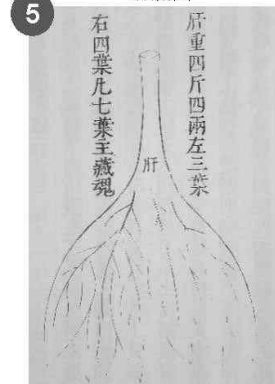
『古今醫統大全』(1556)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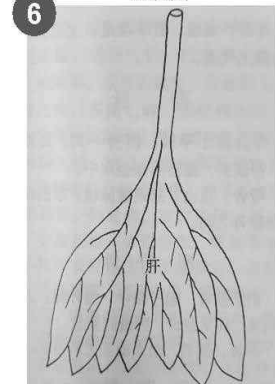
楊繼洲『鍼灸大成』(1601)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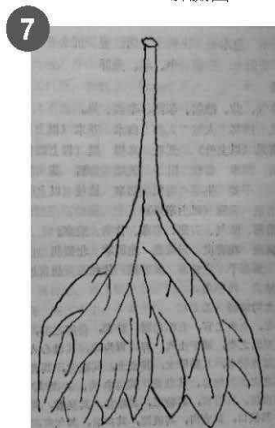
吳文炳『醫家赤幟益辨全書』(1605 丙午)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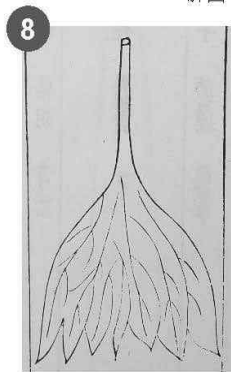
『鍼方六集』(1618)
“肝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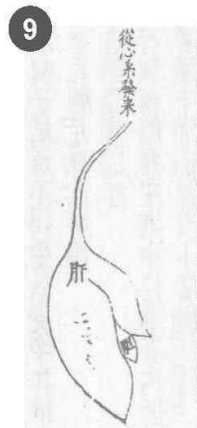
『頤生微論』(1618)
“肝臟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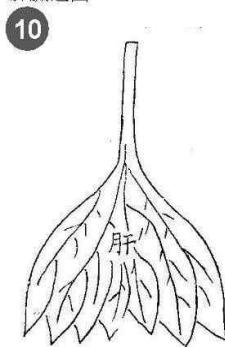
『福壽丹書』(1624)
“肝臟之圖”



『丹臺玉案』(1636)
“肝臟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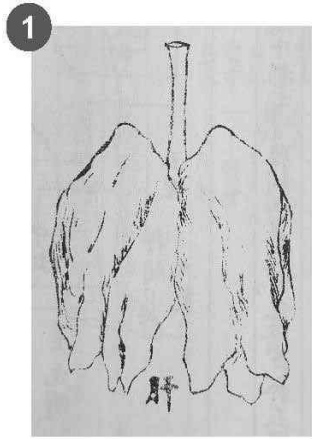


『臟腑證治圖說人鏡經』(1662)
“肝膽圖”



『身經通考』(清代)
“肝臟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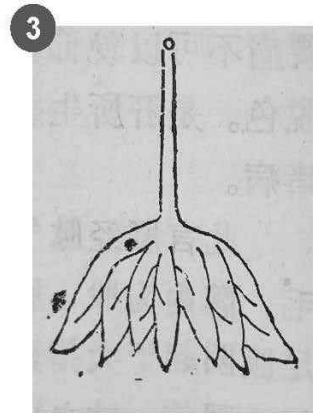
Fig. 5. Diagrams of liver affiliated to *Lingshuzhuzhengfawei*(『靈樞註證發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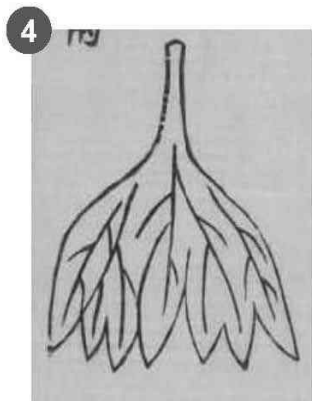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1580)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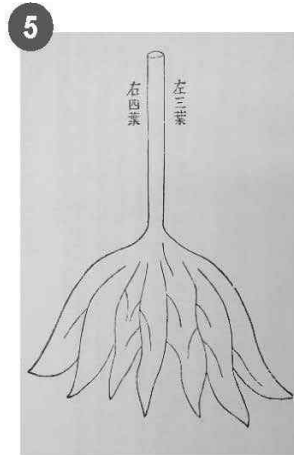
『三才圖會』(1607)
 “肝圖”



『經絡考』(1609)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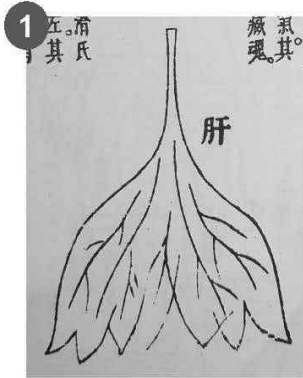


『和漢三才圖會』(1712)
 “肝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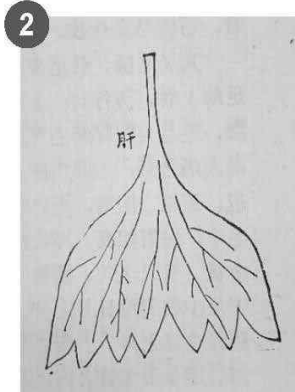


『醫部全錄』(1725)
 “肝臟形象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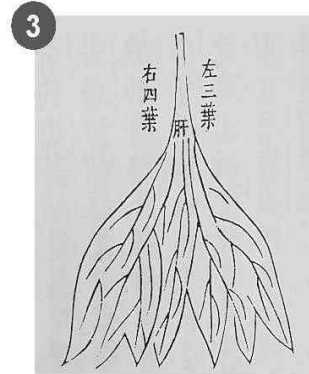
Fig. 6. Diagrams(1/2) of liver affiliated to *Leijingtuyi*(『類經圖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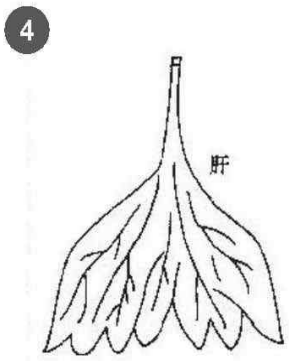
『類經圖翼』(1624)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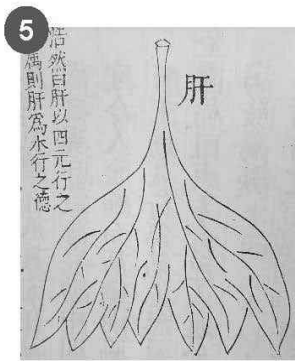
『經絡匯編』(1628)
“肝臟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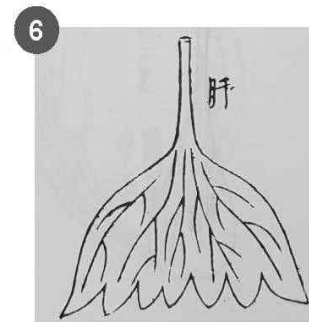
『醫宗必讀』(1637)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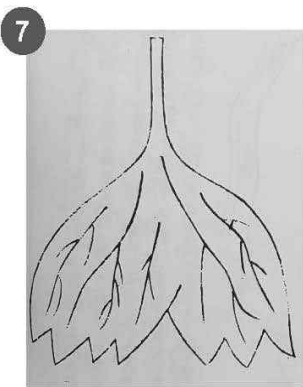
『藏府指掌圖書』(明代)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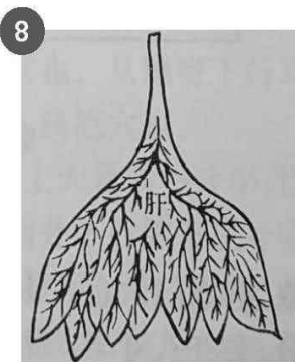
『醫學原始』(明代)
“肝臟圖”



『(新編) 鍼灸要法指南』(1686)
“肝臟圖”



『鍼灸拔萃大成』(1699)
“肝臟圖”



『醫宗金鑑』(1742)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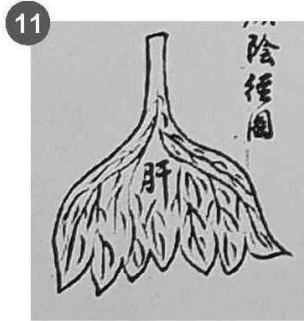


『鍼灸重寶記』(1749)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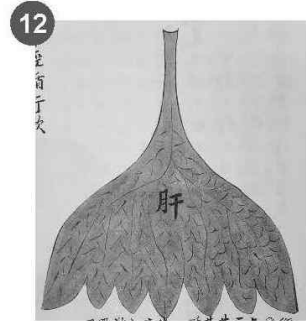
Fig. 7. Diagrams(2/2) of liver affiliated to *Leijingtuyi*(『類經圖翼』) and diagram of liver in *Zhenjiuyuan*(『鍼灸原樞』)



『瘍醫大全』(1760)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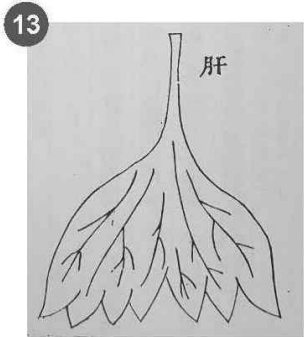


『經絡相法』(清代)
 “肝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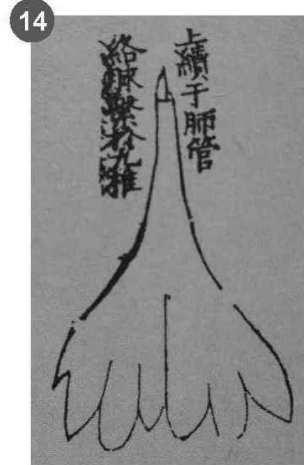


『傳悟靈濟錄』(1869)
 “肝臟圖”

diagram of liver in *Zhenjiuyu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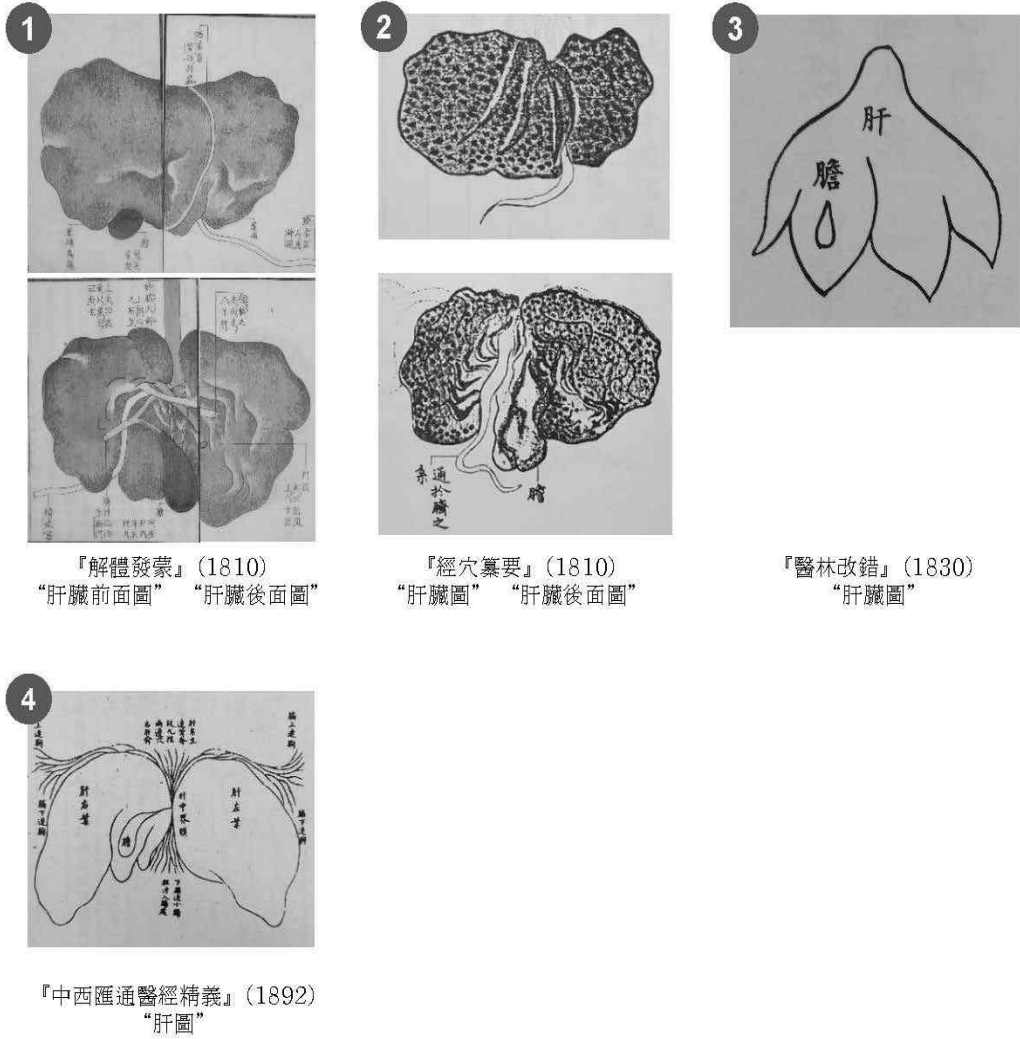


『經脈圖考』(1878)
 “肝臟圖”



『鍼灸原樞』(1573)
 “肝臟形象之圖”

Fig. 8. Diagrams of liver originated from modern human anatomy



[Appendix] Sources of diagrams of liver

| 肝臟圖의 출전 | 페이지 |
|---|----------|
| Fig. 4. 『鍼灸聚英』 계열(明堂臟腑圖 기원)의 肝臟圖 | |
| ① 高武. 鍼灸聚英(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99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589 |
| ② 徐春甫. 古今醫統大全(上). 서울. 아울로스출판사. 1994. | 430 |
| ③ 楊繼洲. 鍼灸大成. 서울. 대성문화사. 1990. | 346 |
| ④ 吳文炳. 醫家赤幟益辨全書(v.2).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9. | 27 |
| ⑤ 吳昆. 鍼方六集(北京大學圖書館 館藏善本醫書 v.11).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7. | 205 |
| ⑥ 李中梓. 刪補頤生微論(李中梓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 685 |
| ⑦ 龔居中. 福壽丹書.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94. | 227 |
| ⑧ 孫文胤. 丹臺玉案(中國醫學珍本叢書 중).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 40 |
| ⑨ 錢雷. 臟腑證治圖說人鏡經(故宮珍本總刊 vol. 71). 海口. 海南出版社. 2000. | 45 |
| ⑩ 李濂. 身經通考(珍本醫籍叢刊 중).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4. | 87 |
| Fig. 5. 『靈樞註證發微』 계열(明堂臟腑圖 기원)의 肝臟圖 | |
| ① 馬蒞.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馬元臺張隱庵合註). 臺北. 台聯國風出版社. 1981. | 115 |
| ② 王圻. 三才圖會(v.4). 서울. 민속원. 2004. | 1387 |
| ③ 張三錫. 經絡考(經絡全書 中).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2. | 174 |
| ④ Terashimaryoan. Wakansansazue. [cited at February 13th, 2016.]. v.11(經絡). Available from URL: http://lisa.shimane-u.ac.jp/0/collection/da/da.asp?mode=vt&id=1317 | 21 |
| ⑤ 陳夢雷. (圖書集成)醫部全錄(v.5). 서울. 大星文化社. 1992. | 87 |
| Fig. 6. 『類經圖翼』 계열(明堂臟腑圖 기원)의 肝臟圖(1/2) | |
| ① 張介賓. 類經圖翼. 서울. 대성문화사. 1990. | 82 |
| ② 翟良. 經絡匯編(經絡全書 中).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1982. | 255 |
| ③ 李士材. 醫宗必讀(中國醫學大成績集 v.30).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0. | 82 |
| ④ 施沛. 藏府指掌圖書(海外回歸中醫善本古籍叢書 v.12).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3. | 612 |
| ⑤ 王宏翰. 醫學原始.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9. | 379 |
| ⑥ 岩田利齋. (新編)鍼灸要法指南(v.18).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 124 |
| ⑦ 오카모토잇보코(岡本一抱子). 鍼灸拔萃大成.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 42 |
| ⑧ 吳謙. 醫宗金鑑(下冊).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2. | 2196 |
| ⑨ 本郷正豊. 鍼灸重寶記(鍼灸醫學典籍大系 v.17).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 21 |
| Fig. 7. 『類經圖翼』 계열(明堂臟腑圖 기원)의 肝臟圖(2/2) | |
| ⑩ 顧世澄. 瘍醫大全.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7. | 110 |
| ⑪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 33 |
| ⑫ 張衍恩. 傳悟靈濟錄(一). 北京. 中醫古籍出版社. 2005. | — |
| ⑬ 陳惠疇. 經脈圖考(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996).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799 |
| Fig. 7-⑭. 『鍼灸原樞』 계열(明堂臟腑圖 기원)의 肝臟圖 | |
| ⑭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 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 32 |
| Fig. 8. 현대적 해부학 기원의 肝臟圖 | |
| ① 三谷樸. 解體發蒙(v.2). 日本. 大坂書林. 京都書林. 1813. [cited at February 13th, 2016.]. Available from URL: http://archive.wul.waseda.ac.jp/kosho/ya09/ya09_00862/ | 8,9 |
| ② 小阪元祐. 經穴纂要(鍼灸醫學典籍大系 v.21). 大阪. 出版科學綜合研究所. 1978. | 302, 303 |
| ③ 王清任. 醫林改錯. 서울. 一中社. 1991. | 11 |
| ④ 唐宗海. 中西匯通醫經精義(續修四庫全書 子部 醫家類 v.982).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5. | 647 |